

2014년 10월 16일(목)

투자컨설팅파트

이슈 분석

02

달러화 강세와 주식시장 영향

투자아이디어

03

금리인하 수혜주는 금리인하 수혜가 아니다

해외 상황 및 경제 일정

04

투자유망종목

05

Core Top 20

Eagle Top 10

Q&A 한마당

07

수급 기관/외국인 수급

08

오늘의 이슈

호재

저가 매수세 유입 기대감

미국의 금리 인상시기 지연 가능성

각국 정책당국의 대응 정책

악재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3분기 기업실적 부진 우려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감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그리스 재정위기 재부각

시장지표

주요 지표	증가
KOSPI	1,925pt (-0.17%)
KOSDAQ	545pt (+0.27%)
KOSPI200선물지수	245pt (+0.29%)
KOSPI 거래대금	40,864 억원
외국인/기관 동향	-1,815 / +815 억원
프로그램 매매	-338 억원
원달러 환율	1,063 원(-1.40원)
주식형 수익증권	771,301억원 (+1,451억원)
국고채 금리(3년)	2.28% (+0.01%p)
DOW	16,141pt (-1.06%)
NASDAQ	4,215pt (-0.28%)
야간선물	243pt (-0.73%)
(예상 KOSPI 지수)	1,911pt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주문/투자상담 080-851-8200 업무/기타상담 080-851-8282 ARS 080-852-1234 해외에서 이용시 82-2-6906-4201

이슈 분석

달러화 강세와 주식시장 영향

투자전략파트 박성현

| 달러 강세 이유는? ☞ 미국과 여타 선진국 사이의 경기 차이가 근본적 원인

- 현재의 달러강세는 복합적인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여타 국가들 간의 경기차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기업이익과 노동시장 개선이 나타나며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를 앞두고 있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인상까지 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경우 경기회복속도가 둔화되며 3분기 역성장 가능성도 존재하고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호한 경기흐름을 보이던 독일마저 최근 부진한 경기상황을 보임에 따라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본 또한 지난 소비세 인상 이후 소비와 투자가 침체되며 경기회복 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 이런 국가간의 경기차는 금융시장은 물론 중앙은행의 정책의 차이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그간 지속해온 유동성 공급을 멈추고 향후 회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반면, 유로존과 일본은 여전히 자국의 부진한 경기 회복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고, 추가부양책까지 계획 중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내 달러강세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불거진 유로존의 경기침체 우려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발생시키며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 달러 강세의 영향은? ☞ 신흥국 자금유출 우려 확대

- 달러강세가 나타나면 여타 통화는 상대적으로 약세 전환하게 됩니다. 실제 10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하며 수출주 실적 우려를 낳았던 원/달러 환율이 9월 이후 강하게 상승하며 1070원/달러 수준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수출 관점에서 본다면 원화의 약세 전환을 통한 수출 확대는 기대보다 강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품들과 경합하는 일본산, 유럽산 제품들의 유로화/엔화 절하로 인한 가격 메리트가 더 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준기축통화를 가진 유로존, 일본의 중앙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며 통화약세를 이끌고 있고, 한국의 경우 지속된 경상수지 흑자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달러 강세는 신흥국 및 여타 지역에 투자된 미국의 자금을 회수하려는 욕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바로 환차익 때문입니다.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약세를 보이던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게 된다면 해외에 투자된 자금들의 달러환산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환차익에 대한 욕구는 특히 신흥국 금융시장에서 자금유출을 촉발시켜 큰 혼란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 향후 전망은? ☞ 신흥국 자금유출 우려 확대

- 장기 관점에서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급했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를 근원에서 진정시키는 trigger는 유로존의 정책발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추가 부양책으로 미국과 유럽의 경기차가 축소된다면 달러 강세 또한 주춤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증시를 억누르는 대외적 요인의 약화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장기 KOSPI 경로는 연말~내년1분기 달러강세 및 실적 우려에 의한 약세장(1,880~2,100pt)에서 2분기 이후 완만한 상승추세로 전환(2,030~2,220pt)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초이노믹스에 의한 내수주 실적 개선 및 배당의 실질적 확대 움직임이 지수를 이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 약세장 구간에서는 다중으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900pt 근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액티브/가치주 펀드 분할 매입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심 섹터로는 금융/유통/통신/유틸리티/건설 등 낮은 PBR을 보이는 내수주에 대한 분할매수 관점을 유지합니다.

투자아이디어

_ 투자컨설팅파트

금리인하 수혜주는 금리인하 수혜주가 아니다 | 금리인하 후 하락 비율 높아

- 전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종전의 2.25%에서 사상 최저치와 동일한 2.00%로 25bp 인하. 경기나 물가 등이 당초 예상했던 경로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통화 당국 차원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하지만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2.00%로 인하된 것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 그 이유는 통화 당국의 경기 인식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
- 추가로 금리 인하가 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금리 인하 수혜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음. 하지만 과거 2004년 이후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금리 인하 수혜업종들은 총 12번의 금리 인하 발표 후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수혜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 증명됨(표1 참조)

[표1] 금리 인하 후 1주일간 업종별 수익률 비교

금리 인하 시기	1주일 KOSPI 수익률	1주일 업종 절대 수익률				KOSPI 대비 1주일 상대 수익률			
		건설	은행	증권	보험	건설	은행	증권	보험
2004-08-12	2.85%	0.14%	1.38%	5.05%	5.68%	-2.71%p	-1.47%p	2.20%p	2.84%p
2004-11-11	1.69%	-5.53%	2.99%	2.08%	-0.06%	-7.23%p	1.30%p	0.38%p	-1.76%p
2008-10-09	-6.26%	-10.63%	-10.96%	-5.39%	-10.43%	-4.37%p	-4.70%p	0.87%p	-4.17%p
2008-10-27	19.30%	20.54%	-4.43%	22.91%	19.95%	1.24%p	-23.73%p	3.62%p	0.65%p
2008-11-07	-4.07%	-0.13%	-18.18%	-11.87%	-1.84%	3.94%p	-14.10%p	-7.80%p	2.24%p
2008-12-11	1.86%	9.15%	-5.41%	4.92%	4.46%	7.29%p	-7.27%p	3.06%p	2.60%p
2009-01-09	-3.87%	-7.70%	-2.68%	-3.63%	-1.42%	-3.82%p	1.19%p	0.25%p	2.45%p
2009-02-12	-6.17%	-5.40%	-12.10%	-4.91%	-3.53%	0.76%p	-5.94%p	1.26%p	2.64%p
2012-07-12	2.10%	-1.68%	-1.90%	-0.53%	2.38%	-3.78%p	-4.00%p	-2.63%p	0.28%p
2012-10-11	1.35%	1.22%	-0.82%	0.35%	0.87%	-0.13%p	-2.17%p	-0.99%p	-0.47%p
2013-05-09	0.37%	1.23%	-0.32%	-0.31%	3.04%	0.86%p	-0.69%p	-0.68%p	2.67%p
2014-08-14	-0.92%	-2.44%	-4.87%	-4.09%	-0.17%	-1.52%p	-3.95%p	-3.17%p	0.75%p

- 금리 인하 후 1주일 간 수익률을 보았을 때 절대 수익률은 건설, 은행, 증권, 보험 업종 모두 과반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임. KOSPI와의 상대수익률에 있어서도 총 12차례중 8차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보험업종 외 나머지 업종은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 따라서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 업종들은 더 이상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국 금리 인하 뉴스보다는 기대감으로 인한 업종의 움직임에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임

해외 시황 및 경제일정

— 투자컨설팅파트

해외 마감상황

미국 유럽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경제지표 악화로 3대지수 하락 지속

- 미국 노동부는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달보다 0.1% 내렸다고 발표하였으며 2013년 8월 이후 13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유로존 경제가 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하고 중국 경제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지표 부진으로 투자심리는 급속히 냉각됨
- 미국내 3번째 에볼라 감염자가 발생하며 확산 우려가 커진 것도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장중 3대 지수는 2% 후반의 급락세를 보였으나 소형주와 운송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만회함

유럽 미국 경제 지표 부진과 그리스 재정리스크 재부각으로 급락 마감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증시는 연중 최저치를 하락하여 마감함
- 미국 경제지표 부진 발표 영향으로 하락폭은 커졌으며, 그리스 증시는 연립정부가 조기총선 가능성에 따라 구제금융을 조기에 졸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6.3% 급락함(201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
- 그리스 국채 10년물 금리도 0.8%p 급등한 7.6%까지 상승하여 경제위기 당시의 수준으로 상승함

NEWS 美 베이지북 “완만한 성장이 이어지는 중”

-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베이지북에 따르면 12개 연방준비은행은 “미국 내 대다수 지역 경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평가 함
- 에볼라 감염자가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 에볼라 양성 반응을 보이기 하루전 비행기를 탄 것으로 알려져 확산 우려감은 증가됨

경제코멘트

주요 발표 지표	결과	컨센서스	이전치	코멘트
미, 9월 소매판매(% , mom)	-0.3%	-0.2%	0.6%	8개월만에 감소, 컨센서스 하회
발표 예정 지표	컨센서스	이전치	코멘트	
미, 9월 산업생산(% , mom)	0.4%	-0.1%	경기 회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증가는 지속될 전망	

경제일정

14일(화)	15일(수)	16일(목)	17일(금)	20일(월)
유, 8월 산업생산	미, 9월 소매판매 미, 베이지북 한, 금융통화위원회	미, 9월 산업생산 미,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 9월 소비자물가지수	미, 9월 주택착공 미, 10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지수	주요 지표 발표 없음
21일(화)	22일(수)	23일(목)	24일(금)	27일(월)
미, 9월 기존주택매매 중, 3Q14 GDP 성장률 중, 9월 산업생산	미, 9월 소비자물가지수 일, 9월 수출입 동향	미, 9월 경기선행지수 유, PMI 제조업지수 유, 소비자기대지수	한, 3Q14 GDP 성장률 미, 9월 신규주택매매 EU 정상회담(~24일)	미, 9월 미결주택매매

자료: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투자컨설팅파트

투자유망종목 Core Top 20

_리서치센터 퀀트

수익률현황 (0814~)	KOSPI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누적수익률
	-6.82%	-9.21%	-2.39%p

종목 선정	선정방법	매월말 기준 시가총액 200위 대상
	선정기준	이익 모멘텀, 수급, 이익 퀄리티, 밸류에이션 등을 기준으로 계량 모델을 통해 종합 점수 산정 산정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10% 종목 선정 하단 테이블의 각 수치는 0~100의 범위로 100에 가까울수록 투자 매력도 상위 종합점수는 각 항목의 가중평균을 합산한 점수로 높을수록 투자매력도가 높음

종목명	이익 모멘텀	수급	이익 퀄리티	밸류	종합 점수	종목명	이익 모멘텀	수급	이익 퀄리티	밸류	종합 점수
현대하이스코	86.09	89.57	60.00	72.86	81.13	영원무역	92.06	80.07	49.09	36.91	70.56
LG 디스플레이	93.21	58.97	73.94	77.35	81.01	우리투자증권	88.35	72.00	50.00	46.82	70.47
한국전력	95.89	80.57	4.24	64.00	77.89	SK가스	71.45	80.32	96.97	49.30	67.90
SK하이닉스	69.31	93.46	27.27	87.59	76.69	아모레퍼시픽	80.97	92.21	54.55	32.34	66.68
SK텔레콤	84.28	95.24	21.82	63.36	76.15	SK브로드밴드	85.88	83.15	46.06	31.48	66.49
SK	82.28	43.08	74.55	82.22	74.67	한국콜마	85.89	85.65	77.58	23.06	66.30
LG하우시스	80.37	68.90	86.06	59.46	72.29	대우 인터내셔널	86.79	16.69	94.55	59.22	66.16
컴투스	96.46	84.15	32.12	36.84	72.26	영원무역 홀딩스	76.57	66.57	53.94	52.21	66.00
대상	69.00	90.71	84.24	61.66	71.64	LF	88.61	15.19	70.30	61.53	65.94
현대상사	85.33	32.47	98.79	66.17	70.73	삼성화재	69.54	93.24	50.00	46.44	65.67

* 주: 당사 리서치센터 퀀트 계량분석기법 중심으로 종목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기업분석의견과 상이할 수 있음

투자유망종목 Eagle Top 10

_투자컨설팅파트

수익률 현황 (0102~)	KOSPI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벤치마크 대비 누적수익률
	-3.97%	+6.19%	+10.16%p

종목 선정	선정방법	투자기간 3개월 이상, KOSPI 200 및 KOSDAQ 100 종목 중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
	선정기준	이익모멘텀, 밸류에이션, 이익성장성, 이익퀄리티(ROE 이익률 등), 기관 및 외국인 수급 강도 손절매는 -10% 초과 시 종목 교체(종목 상황에 따라 종목 교체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종목명	편입일	편입가 (원)	현재가 (원)	누적 수익률	투자포인트
CJ제일제당	5/9	321,000	384,000	+19.63%	라이신가격 반등에 따른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및 원화강세에 따른 원가율 개선 지속
강원랜드	7/11	33,300	33,450	+0.45%	2분기 실적 개선 및 하반기 증설효과 반영 기대. 일반테이블 증설물량 68대 중 현재 주중 35대, 주말 45대 가동 중
현대백화점	8/1	147,000	141,000	-4.08%	2015년 1월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 8월과 10월에 판교점과 송도 프리미엄 아울렛 등 점포 확장 예정
LG유플러스	9/1	10,950	11,400	+4.11%	단통법 이후 경쟁 완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 LTE무제한 가입자 비율 증가로 가입자당 평균단가 증가
AK홀딩스	9/1	60,500	60,000	-0.83%	자회사 제주항공 수익성 개선 지속 비상장 자회사들의 안정적인 이익성장으로 투자 매력 증가
NHN엔터 테인먼트	9/19	81,400	79,200	-2.70%	모바일게임 라인업 가시화로 투자심리 개선 한국사이버결제 인수로 전자상거래 사업강화 예상
에스원	9/26	83,700	82,200	-1.79%	보안서비스와 건물관리서비스 영업 호조 계열사 외 건물관리 사이트수도 늘어나 분기 매출 확대
휠라코리아	9/26	114,500	112,500	-1.75%	휠라USA 제품 믹스 개선으로 평균 단가 상승 7월부터 국내 사업 매출 회복으로 추가 모멘텀 확보
피에스케이	9/26	12,900	14,000	+8.53%	반도체 산업 수급 불균형 지속되며 반도체 투자 수요 증가 투자 수요 증가가 2015년까지 이어지며 실적 개선 지속
베이직 하우스	10/10	22,450	22,650	+0.89%	신규 브랜드 주시주디 판매 호조로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 중국사업부의 기존점 성장률 상승 전환 예상

* 주: 계량분석기법 중심으로 종목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기업분석의견과 상이할 수 있음

Compliance Notice

상기 종목에 대하여 2014년 10월 10일 기준 조사분석 담당자는 규정상 고지하여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2014년 10월 10일 현재 상기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김기혁, 이국환, 김선구)

Q&A 한마당

Q1. 삼성SDI	Q: 삼성 SDI 주가 하락 원인과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p>삼성SDI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98억원이나 실제 발표치는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p> <p>실적부진 원인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른 소형 2차전지 사업부 이익 감소,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따른 비용 발생, 제일모직 전자 재료 사업부 부진 지속 등의 요인</p> <p>현재 주가는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가치(에버랜드, 삼성물산, 삼성SDS 등) 수준으로 사업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또한 올해 중 삼성에버랜드 상장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투자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p> <p>기관매도(연기금 비중축소 공시)와 ELS/ELF 낙인 가격 도달 가능성으로 당분간은 수급 이슈에 따른 주가 등락이 예상됨</p>

Check Point

▶ 삼성SDI good & bad

Good	2015년은 ESS/대형 2차전지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존재 현재 주가는 사업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수준까지 하락 연말 에버랜드 상장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Bad	AMOLED 사업 부진 지속으로 (구)제일모직 소재 사업 부진 지속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 ELS/ELF 등 낙인가격 도달에 따른 수급 불안 / 연기금 등 주요 기관 매도 지속

Q2. 배당관련	Q: 배당률이 높은 회사중에 밸류에이션이 낮은 회사는 없을까요?
	<p>2014년 예상 배당수익률이 높은 회사 동양생명, 하이트진로, 서원인텍, 울촌화학, KT&G 등이 있음</p> <p>배당 관련 펀드로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배당수익률이 높은 회사들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됨</p>

Check Point

▶ 고배당 & 밸류에이션 매력 종목

종목	결산월	시가총액(십억)	배당수익률(%)	14(E) PER (배)	14(E) PBR (배)
동양생명	12	1,220	4.41	7.2	0.7
하이트진로	12	1,820	4.14	40.1	1.4
서원인텍	12	186	4.00	5.9	1.3
울촌화학	12	334	3.70	14.0	0.5
KT&G	12	12,356	3.65	15.8	2.2

기관/외국인 수급

_ 투자컨설팅파트

기관/외국인 연속 순매수

	KOSPI	KOSDAQ
기관 연속 순매수	SK텔레콤(40) 아모레G우(38) NAVER 삼성화재(22) SK하이닉스(17) 아모레퍼시픽(9)	이엠넷(35) 삼천당제약(15) ISC(13) 한국토지신탁(10) 코텍(8) 코메론(6)
외국인 연속 순매수	CJ제일제당(17) 삼성카드(13) LG상사(12) 대우인터내셔널(8) 대상 다우기술(5)	유진테크(12) 고영(10) 바이오랜드(8) SK컴즈(6) 아프리카TV(5) 오스팀임플란트(4)
외국인/기관 동반 순매수	LG생활건강 대한해운 빙그레 대한항공 LS산전 한국타이어	바이넥스 토비스 동서 인터파크 삼천당제약 마크로젠 한양이엔지 한글과컴퓨터 웹젠

* 괄호()는 연속 순매수 일수, / 기준: 순매수 수량 3,000주 이상

코스피 순매매 상위 종목

	외국인 일간 순매수		외국인 일간 순매도		기관 일간 순매수		기관 일간 순매도	
	종목명	대금(백만)	종목명	대금(백만)	종목명	대금(백만)	종목명	대금(백만)
1	LG생활건강	12,456	한국전력	-33,194	한국전력	24,152	현대차	-16,655
2	삼성전자	12,041	POSCO	-15,308	NAVER	20,977	삼성전자	-14,812
3	LG	6,819	현대모비스	-13,545	SK하이닉스	17,120	대우조선해양	-11,208
4	LG디스플레이	5,378	신한지주	-11,872	LG생활건강	15,782	삼성SDI	-9,041
5	삼성물산	5,322	KT	-11,660	아모레퍼시픽	12,952	삼성물산	-8,195

코스닥 순매매 상위 종목

	외국인 일간 순매수		외국인 일간 순매도		기관 일간 순매수		기관 일간 순매도	
	종목명	대금(백만)	종목명	대금(백만)	종목명	대금(백만)	종목명	대금(백만)
1	파라다이스	4,195	다음	-7,189	다음	8,962	에스엠	-8,197
2	메디톡스	3,270	선데이토즈	-2,870	게임빌	3,711	차바이오텍	-5,780
3	컴투스	1,943	소리바다	-1,813	컴투스	2,913	파라다이스	-5,295
4	게임빌	1,942	에스엠	-1,710	바이넥스	1,929	크루셜텍	-4,365
5	KH바텍	1,680	셀트리온	-1,597	마크로젠	1,695	한국사이버결제	-2,510

거래 급증 상위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종목명	등락률	거래대금(백만)	거래급등률	종목명	등락률	거래대금(백만)	거래급등률
1	일양약품	14.82%	54,212	1,576%	데코앤이	14.78%	31,172	551%
2	파미셀	2.91%	45,836	445%	홈캐스트	5.96%	48,602	343%
3	KCC	-3.24%	35,064	260%	인피니트헬스케	4.08%	17,507	247%
4	삼성생명	0.94%	35,186	225%	바이넥스	8.67%	48,012	210%
5	엔씨소프트	3.10%	37,963	188%	차바이오텍	14.76%	30,591	205%

* 전 영업일 종료기준 거래대금 상위 20종목 중 거래급등률 상위 5종목

* 전 영업일 오후 5시 00분 DataguidePro 기준